

18세기 불교계의 표충사(表忠祠)와 수충사(酬忠祠) 건립과 국가의 사액

이종수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su5589@hanmail.net

- | | |
|------------------------------------|------------------------------------|
| I. 머리말 | IV. 해남 대둔사의 표충사(表忠祠) 사액 |
| II. 조선 후기 국가의 현충 사액 | V. 보현사와 건봉사의 수충사(酬忠祠)
건립과 국가 사액 |
| III. 밀양의 표충사(表忠祠) 사액과 해인
사와의 갈등 | VI. 맺음말 |

요약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유교적 질서를 재건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충의 현창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충신열사들에게 관직을 추증하고 사당을 건립하여 향사하였으며 국가의 사액이 내려졌다. 이러한 충의 현창 사업의 영향을 받아 18세기부터 임진왜란 충의 승려인 사명대사 유정과 서산대사 휴정에 대한 사당 건립과 사액이 추진되었다.

먼저 1738년(영조 14) 밀양에서 사명대사 사당인 표충사를 세우고 임금의 사액을 추진하여 성공함으로써 불교계에서 임진왜란 충의 승려인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사당 건립과 사액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어서 서산대사 사당과 사액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한 곳은 해남 두륜산 대둔

* 이 논문은 2017년 순천대학교 학술기반조성비로 연구되었음.

사(지금의 대흥사)였다. 대둔사 승려들은 1788년(정조 12) 서산대사의 의발이 전해지고 있으며 청허계의 중심 사찰인 대둔사야말로 서산대사 사당과 사액의 정당성을 갖는 곳이라며 사액의 당위성을 조정에 건의하였고, 정조는 서산대사 사당에 ‘표충’의 편액을 하사하였다.

그 다음에는 묘향산 보현사 승려들이 서산대사가 머물다 입적한 곳이 보현사임을 들어 서산대사의 사당을 짓고 조정에 사액을 요청하였다. 정조는 보현사의 요청이 정당하다며 1794년(정조 18)에 ‘수충’의 편액을 하사하였다. 아울러 두류산 표충사와 묘향산 표충사에 정조의 친필 「서산대사화상당명병서」를 하사하기까지 하였다.

보현사 사액의 소식을 들은 금강산 건봉사 승려들이 1797년(정조 21)에 건봉사야말로 사명대사의 출가 수행처라는 점을 들어 사액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조정에서 건봉사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봉사 승려들은 임금의 사액을 받아내지는 못했으나 1800년(정조 22)에 사명대사의 사당인 수충각을 짓고 사명대사 비석을 세웠다. 이로써 18세기 불교계의 충의 승려 사액 운동은 끝을 맺게 되었다.

주제어

서산대사 휴정, 사명대사 유정, 사액(賜額), 표충사(表忠祠), 수충사(酬忠祠), 밀양 표충사(表忠寺), 해남 대흥사(大興寺), 묘향산 보현사(普賢寺), 금강산 건봉사(乾鳳寺), 합천 해인사(海印寺)

I. 머리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무부무군(無父無君)의 가르침이라 여겼던 불교에 대한 유학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여 승려들의 비문과 문집 서문을 유학자들이 찬술하기도 하고, 승려들과의 서신 교류도 늘어났다. 이러한 불교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양란에서 공을 세운 승려들에 대한 추숭사업이 18세기에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밀양과 해남의 표충사(表忠祠)이다. 맨 먼저 건립된 밀양 표충사는 사명대사 유정(惟政, 1544~1610)의 충의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고, 18세기 후반에 세워진 해남 표충사는 서산대사

휴정(休靜, 1520~1604)의 진영과 위패를 모시고 국가 제향을 올렸다. 이 외에도 18세기 후반 묘향산 보현사와 금강산 건봉사에도 각각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충의를 기리기 위해 수충사(酬忠祠)가 건립되었다.

그런데 밀양과 해남의 표충사와 묘향산 수충사에 대해서는 각각 연구가 진 행되기는 했으나¹⁾ 그 계기적(繼起的)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묘향산 보현사 수충사에 대해서는 해남 표충사를 언급하면서 간단히 언급되는 정도이고, 금강산 건봉사 수충사²⁾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전무한 실정이다. 18세기 네 곳에 건립된 표충사와 수충사의 사액 과정에서 지역 간에 갈등이 있었고, 그 결과 오늘날의 추송 공간이 성립 된 것이다.

이러한 표충사와 수충사의 건립은 계기적 연관 속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 건립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18세기 국가의 불교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18세기 표충사와 수충사의 건립과 사액 과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조선 후기 국가의 충의(忠義) 현창 사업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 조선후기 국가의 현충 사액

성리학의 나라 조선을 건국하고 이끌어간 유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는 충효로 상징되는 의리와 명분이었다. 연산군~명종대에는 그 의리명분을 지키려다가 많은 사람의 선비들이 사화(士禍) 속에 희생되기

- 1) 장동표, 「조선후기 밀양 표충사의 연혁과 사우 이건 분쟁」, 『역사와 현실』 35, 서울: 한국역사연구회, 2000, pp.147-173.; 이철현, 「밀양 표충사의 연혁에 대한 재조명」, 『불교학보』 52, 서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9, pp.125-146.; 이철현, 「사명당 유정에 대한 밀양 유림의 평가와 추모사업」, 『한국불교학』 59, 서울: 한국불교학회, 2011, pp.97-128.; 이철현, 「표충사 춘추제향의 역사와 실행-밀양 표충사와 해남 표충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76, 서울: 한국불교학회, 2015, pp.425-451.; 김상영, 「청허휴정의 사문상과 표충사 제향의 의의」, 『한국선학』 33, 서울: 한국선학회, 2012, pp.177-216.
- 2) 후술하겠지만 건봉사에는 1800년경 ‘수충각’이 건립되었다. 이 수충각은 건물 명칭으로서 사명대사의 충의를 기리는 사당이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로서 ‘수충사’라고 표현하였다.

도 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서도 임금에 대한 의리명분을 지키기 위해 의병을 일으켜 침략자들에 맞서 싸운 유학자들이 많았다.

양란이 끝난 후에는 혼란한 사회를 수습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성리학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는데, 백성들에게는 조세와 공납을 토지세로 일원화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대동법을 시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대동법의 시행은 재정의 중앙집권화와 화폐의 발달을 초래하였고 조선후기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그와 더불어 성리학적 문화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백성 교화의 이념과 제도를 강화하였다. 이념의 강화는 예제(禮制)의 발달로 나타나고 제도의 강화는 사족지배체제의 강화로 이어졌다.

중앙집권자들은 소중화의식의 자존감으로 예제를 정비하였으며, 그 실천자인 재지사족들은 유향소(留鄕所)를 중심으로 향약(鄕約)을 실시하여 지방 통치 질서를 공고히 하였고 향교와 서원을 통해 백성 교화를 이어갔다. 이는 모두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신분 질서를 다시 양반 중심의 유교적 질서로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다. 특히 예론의 발전은 예송으로까지 비화하기도 했으나 의리명분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충신에 대해 국가적 예우의 당위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현종-숙종대에 임진왜란 당시 임금에 대한 의리명분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충신열사에게 관직을 추증하고 사우(祠宇)를 건립하여 추모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미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인 1603년(선조 36) 고경명, 고종후 등의 위패를 모신 포충사(褒忠祠), 그리고 1604년(선조 37) 이순신, 이억기 등의 위패를 모신 여수 충민사(忠愍祠)에 사액을 내린 바 있었다. 이후 현종대부터 숙종대에 이르기까지 임진왜란 충신을 배향하는 서원과 사우의 건립이 크게 증가하고 많은 서원과 사우에 사액을 내렸다.³⁾

3) 서원은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둔 강학의 기능이 기본이 되고, 그 위에 명유(名儒) 혹은 전몰 충신의 위패를 봉안하는 부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비해 사우는 보은(報恩)과 존현(尊賢)에 목적을 두고 충신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별로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임진왜란 충신 사액 서원과 사우)⁴⁾

	지역	서원명	봉안위패자	건립시기	사액시기
경기	개성	송절서원 (崇節書院)	송상현 외 2인	1666(현종 7)	1694(숙종 20)
	김포	우저서원 (牛渚書院)	조현	1648(인조 26)	1675(숙종 1)
	고양	기공사 (紀功祠)	권율	1841(현종 7)	1842(현종 8)
	포천	화산서원 (花山書院)	이항복	1635(인조 13)	1660(현종 1)
	포천	용연서원 (龍淵書院)	이덕형 외 1인	1691(숙종 17)	1692(숙종 18)
충청	공주	충현서원 (忠賢書院)	조현 외 7인	1581(선조 14)	1625(인조 3)
	옥천	표충사 (表忠祠) ⁵⁾	조현 외 4인	1608(광해군 즉위년)	1609(광해군 1)
	서천	건암서원 (建巖書院)	조현 외 3인	1662(현종 3)	1713(숙종 39)
	아산	현충사 (顯忠祠)	이순신 외 2인	1706(숙종 32)	1707(숙종 33)
전라	나주	정렬사 (旌烈祠)	김천일 외 3인	1606(선조 39)	1607(선조 40)
	능주	포충사 (褒忠祠)	조현 외 2인	1609(광해군 1)	1611(광해군 3)
	광주	포충사 (褒忠祠)	고경명 외 4인	1601(선조 34)	1603(선조 36)
	광주	의열사 (義烈祠)	박광옥 외 2인	1604(선조 37)	1681(숙종 7)
	여수	충민사 (忠愍祠)	이순신 외 2인	1600(선조 33)	1604(선조 37)
	순천	정충사 (旌忠祠)	장윤	1684(숙종 10)	1686(숙종 12)
	남원	충렬사 (忠烈祠)	이복남 외 7인	1612(광해군 4)	1653(효종 4)
	남원	민충사 (愍忠祠)	황진 외 2인	1709(숙종 35)	1713(숙종 39)
	보성	용산서원 (龍山書院)	박광전	1607(선조 40)	1707(숙종 33)
	보성	정충사 (旌忠祠)	안홍국	1677(숙종 3)	1690(숙종 16)

4) 이 표는 『전고대방(典故大方)』 권4, 「서원향사록(書院鄉祠錄)」에 기록된 사액 서원과 사우만을 표시한 것이다.

	금산	성곡서원 (星谷書院)	고경명 외 5인	1617(광해군 9)	1663(현종 4)
	금산	종용사 (從容祠)	고경명 외 2인	1647(인조 25)	1663(현종 4)
	영암	충절사 (忠節祠)	정운	1652(효종 3)	1681(숙종 7)
	태인	남고서원 (南臯書院)	김천일 외 1인	1577(선조 10)	1685(숙종 11)
	홍양	쌍충사 (雙忠祠)	정운 외 1인	1587(선조 20)	1683(숙종 9)
	고부	정충사 (旌忠祠)	송상현 외 2인	1632(인조 10)	1657(효종 8)
경상	안동	호계서원 (虎溪書院)	유성룡 외 2인	1576(선조 9)	1676(숙종 2)
	안동	병산서원 (屏山書院)	유성룡 외 1인	1613(광해군 5)	1863(철종 14)
	진주	충민사 (忠愍祠)	김시민 외 23인	1652(효종 3)	1667(현종 8)
	동래	낙안서원 (樂安書院) ⁵⁾	송상현 외 12인	1605(선조 38)	1624(인조 2)
	고성	충렬사 (忠烈祠)	이순신	1614(광해군 6)	1723(경종 3)
	현풍	예연서원 (禮淵書院)	곽재우 외 1인	1674(숙종 즉위년)	1677(숙종 3)
함경	길주	명천서원 (溟川書院)	조현	1670(현종 11)	1696(숙종 22)
	북청	노덕서원 (老德書院)	이항복 외 1인	1627(인조 5)	1687(숙종 13)
	경성	창렬사 (彰烈祠)	정문부 외 9인	1666(현종 7)	1667(현종 8)
	회령	현충사 (顯忠祠)	정문부 외 8인	1703(숙종 29)	1707(숙종 33)

위의 표는 임진왜란 당시 큰 공을 세웠던 충신들의 위패를 모신 서원과 사우 중에서 임금으로부터 사액된 곳을 정리한 것이다. 경기 5개, 충청 4개, 전라 16개, 경상 6개, 함경 4개 등 총 35개였다. 이 가운데 서원이 15개이고, 사우가 20개이다. 그리고 선조대 3개, 광해군대 2개, 인조대 2개, 효종대 2개, 현종대 5개,

5) 1682년(숙종 8) 창주서원(滄洲書院)으로 개칭했다가 1754년(영조 30) 표충사로 환원함.

6) 1624년(인조 2)에 충렬사(忠烈祠)로 사액했으나 1652년(효종 3)에 낙안서원(樂安書院)으로 고침.

숙종대 18개, 경종대 1개, 헌종대 1개, 철종대 1개에 사액되었다. 숙종대에 사액된 곳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숙종대에는 2품 이상의 훈신에게만 내리던 시호를 절의지사에게도 내리는 증시(贈諡)가 시행되었고 병자호란의 충신열사에게도 시호를 내리면서 충신열사 현창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⁷⁾

조선시대 건립된 서원과 사우의 수는 자료와 조사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두록(俎豆錄)』·『열읍원우사적(列邑院宇事蹟)』·『서원가고(書院可攷)』·『동국문헌록원우편(東國文獻錄院宇篇)』·『동국원우록(東國院宇錄)』·『서원등록(書院謄錄)』·『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전고대방(典故大方)』에 수록된 서원 465개 중 208개가 사액되고 사우 504개 중 71개가 사액되었는데, 이 중에 숙종대에 건립된 서원 174개 중 108개와 사우 169개 중 26개가 사액되었다.⁸⁾ 이러한 수치는 숙종대에 서원과 사우의 건립 및 사액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액된 서원과 사우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서원과 사우보다 국가로부터 혜택이 많았다. 가령 담양 의암서원의 경우 1668년(현종 9)에 사액되었는데, 그 이후 예관이 파견되어 제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례에 쓸 제수(祭需)와 각종 잡물을 관아로부터 지급 받았다. 또한 토지 3결을 면세 받았고, 노비도 한때 100여명 이상을 소유하였다.⁹⁾ 이처럼 사액 서원과 사우는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각 서원과 사우는 사액을 받기 위한 정치적 활동도 활발하였다. 이는 불교 충신열사의 현창 사업과 무관하지 않았다.

7) 지두환, 「조선 임진왜란 충신열사에 대한 현창정책」, 『사학연구』 100, 경기: 한국사학회, 2010, pp.331-359.
 8) 전용우, 「조선조 서원·사우에 대한 일고찰 - 건립추이 및 제향인물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13, 충남: 호서사학회, 1985, pp.1-30.
 9) 윤희면, 「담양 의암서원의 설립, 사액 그리고 철폐」, 『역사학연구』 57, 광주: 호남사학회, 2015, pp.103-134.

III. 밀양의 표충사(表忠祠) 사액과 해인사와의 갈등

조선후기 충신열사 현창 사업은 유자들만의 몫이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임진왜란 의병의 주역이었던 의승병을 이끈 의승장에 대한 현창 역시 대두되었다. 이는 대동법으로 인해 사원 경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균역법으로 인해 승려의 위상이 점차 하락하던 시대적 상황 속에 이루어졌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양인의 공납 의무가 줄어들어 백성들에게 혜택이 되었으나 사찰에서 각종 잡물을 관청에 조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사찰 경제에는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그리고 조선전기에는 균역의 의무가 없던 승려들이 양란 이후 산성을 수비하는 승군(僧軍)이 되었는데, 균역법 시행 이후 양인들은 정해진 군포만을 납부하고 실제 관군의 대부분을 노비들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승려까지 노비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났던 것이다.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신분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사찰들은 왕실 원당이나 진전(眞殿) 사원이 됨으로써 사원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¹⁰⁾ 또 다른 한편으로 임진왜란 의승장(義僧將)의 권위를 재평가 받음으로써 유림(義兵將)들과 동등한 위상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당시 유행처럼 번지고 있던 의병장의 현창 사업에 기대어 의승장도 함께 현창함으로써 권력자에 대한 불교의 위상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선 곳이 밀양이었다. 밀양은 바로 사명대사의 고향이었다.

1721년(경종 1)에 매곡일인(梅谷逸人)이 지은 「표충암사적기(表忠庵事蹟記)」에 따르면, 밀양부사 김창석(金昌錫)이 1714년(숙종 40) 지역 유생의 요청에 의해 사명대사를 추모하는 사당을 백하암(白霞庵) 옛 터에 세우기로 하고 지역 승려들에게 모연하여 1721년 봄에 완성하여 암자 이름을 표충암(表忠庵)이라 하고 춘추로 향사(享祀)를 지냈다고 한다.¹¹⁾ 또한 이덕수(1673~1744)가 지은 「표충사사적비」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0) 탁효정,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1, pp.24-27.

11) 이철현(2009), 앞의 논문, pp.125-146.

송운의 흔적은 이 산에서 비롯된다. 태어나 성장하였으며 전란을 평정하고 돌아와서는 산 동쪽 기슭에 수 칸의 집을 지어 머물 곳으로 삼아 백하(白霞)라 이름을 걸었다. 선산이 가까우므로 늙은 종 종생과 말생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대사는 나라의 명승지를 구름처럼 돌아다니다가 입적하였다. 후세 사람들이 그 암자에 표충사를 지었으며 관에서는 춘추로 제수를 내리었다. 병자호란을 당하여 지키던 승려들이 흩어지고 사당 또한 허물어져 풀이 무성하였다. 숙종 갑오년(1714)에 김창석이 수백 년 전 대사의 활동을 생각하고 그 자취가 없어진 것을 애석하게 여겨 그곳에 새로 사우를 지었다.¹²⁾

위의 기록을 통해 밀양 유생들과 승려들이 1714~1721년에 걸쳐 사명대사의 유적지인 백하암에 사당을 짓고 향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기록으로 보면 승려들이 먼저 나선 것이 아니라 유생들이 먼저 사명대사의 사당 건립에 앞장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이후 사액을 주도한 이는 밀양 승려 남봉(南鵬)이었다. 그는 1738년에 당시의 권력자였던 우의정 송인명(1689~1746), 이조참판 윤봉조(1680~1761), 그리고 신유한(1681~1752) 등의 발문을 실은 『분충서난록(奮忠紆難錄)』의 간행을 주도하였고, 이의현(1669~1745)에게는 「송운대사영당비명병서(松雲大師影堂碑銘并序)」를 부탁하고, 이천보(1698~1761)에게는 「표충사기(表忠祠記)」를 의뢰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유학자들에게 표충사와 관련한 글들을 부탁하였다.¹³⁾ 그리고 밀양 유생들과 함께 송인명을 통해 사액해줄 것을 조정에 요청하였다.

우의정 송인명이 아뢰기를, ... 유정의 영당이 영남에 있는데, 선왕조에

12) 이덕수, 「표충사사적비」, 『한국사찰전서』 하권, 서울: 동국대출판부, 1979, p.1122. “宋雲發跡於是山 生而長而靖亂而歸 就東麓縛數椽屋 以爲棲息之地 揭名曰白霞 取其密邇先壟 使老蒼頭終生末生守之 而節則雲遊國中 諸勝而終 後人因其庵 作表忠祠 官給春秋祭需 及經丙子之亂 守僧散而祠亦鞠爲茂草 肅廟甲午 金候昌錫 慨然興想於數百年之前 壯師之爲而惜其跡之堙沒 就舊地 復創祠.”

13) 『송운대사분충서난록』, 『한국불교전서』 제8책, 서울: 동국대출판부, pp.78-113.

서 특별히 춘추의 제수를 관급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영당이 심하게 무너져 장차 향화를 폐지하게 되었고, 위전도 또한 잃어버려서 수호해 갈 수가 없다고 영남 중 수백 명이 연명하여 와서 비국에 호소하였습니다. 청컨대 밭 5결을 급복해 주어 풍교를 수립하소서."하니, 국왕이 그대로 따랐다.¹⁴⁾

표충사 사액을 위한 남봉의 활동은 주요하였다. 결국 1738년(영조 14)에 밀양의 사명대사 영당에 '표충'의 사액이 내려졌다. 그리고 1742년(영조 18)에 이우신(1670~1744)이 찬술한 서산대사의 비문이 밀양 표충사에 세워졌다. 이우신은 「서산대사비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조가 그의 공로를 가상하게 여겨 영남 밀양에 표충사를 세우고 휴정과 유정을 함께 배향하라고 명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의 충의에 대해 표창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임금께서 즉위하신 지 14년째인 1738년(영조 14)에 재상의 청으로 인하여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전답을 주어 수호하도록 하라는 명이 있게 되었다. 대사의 법통을 이어 받은 남봉이 밀양의 영취산 삼강동에 사우를 고쳐 새로 짓고는 두 대사가 남겨진 초상을 봉안한 뒤 그 당호를 '홍제'라고 이름 하였다.¹⁵⁾

선조가 서산대사와 그 제자 사명당 유정의 공로를 가상히 여겨 영남 밀양에 표충사를 세우고 휴정과 유정을 함께 배향하라고 명하였으며, 영조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전답을 주어 보호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조가 밀양에 표충사를 세우도록 명했다는 이우신의 이러한 기술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명대사는 선조가 승하하고 왕위에 오른 광해군 2년(1610)에 입적하였다. 그러므로 선조가 죽지도 않은 사명대사의 충의를 기리는 표충사를 세우도록

14) 『영조실록』, 영조 14년(1738) 2월 29일조. “右議政宋寅明曰…聞其影堂在嶺南先朝特令官給春秋祭需影堂近甚頽圯將廢香火位田亦見失無以守護嶺南僧累百聯名來訴於備局請給復田五結以樹風聲焉上從之.”

15) 이우신, 「서산대사비명」,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DB. “宣廟嘉其功命立表忠祠于嶺南之密陽並膺休靜惟政所以褒忠獎義也逮我當宁十四年戊午以相臣之請有給復守護之命師之法裔南鵬改創祠于密之靈鷲山三綱洞奉二師遺像名其堂曰弘濟.”

명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다.¹⁶⁾ 아마도 이우신은 남봉이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충의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준 초안 그대로 서술해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밀양에 ‘표충’의 사액이 있고난 다음해인 1739년에 해인사 승려 성오(聖悟)와 현일(玄一) 등이 사명대사가 입적한 곳이 해인사였음을 명분으로 밀양의 표충사를 해인사로 옮겨 달라고 비변사에 정소(呈訴)하였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해인사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표충사를 이건(移建)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1741년(영조 17) 4월에는 영의정 김재로와 우의정 송인명 등은 해인사에 세운 사우가 첩설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해주었다.¹⁷⁾ 주지하다시피, 1741년은 전국적으로 첩설(疊設)된 서원과 사우를 정리하였던 해이다. 숙종대에 남설(濫設)된 서원과 사우를 이때 크게 정리하였던 것이다.¹⁸⁾

그런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1784년(정조 8)에 해인사 승려들이 다시 밀양 표충사를 해인사로 옮겨달라는 상소를 올렸다. 이로써 두 지역의 승려들 사이에 격한 대립이 생겨났다. 당시 상황에 대해 『비변사등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경상도 합천 해인사의 승려 성연의 아자비인 정기상이 대신해서 상언하기를, 본현 해인사의 표충사는 곧 휴정·유정·영규를 향사하는 곳으로 사당이 창설된 것은 만력 1610년(광해 2)이고 1647년(현종 15)에 사액되고 1678년(숙종 4)에 사당을 해인사에 세우고 표충이라는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 1741년(영조 17)에 서원이나 사당이 첩설된 곳은 훼손하라는 조정의 명령으로 해인사의 표충사가 밀양보다 뒤졌다고 해서 이어 훼손됐습니다. 해인사에 사당이 창설된 것이 1610년에서 1741년까지 1백 40여 년이고 밀양에 사당이 처음 세워진 것은 1739년(영조 15)인데 1741년까

16) 장동표(2000), 앞의 논문, pp.147-173; 이철현(2009), 앞의 논문, pp.125-146.

17) 「밀양표충사우수호승도돈화등장(密陽表忠祠宇守護僧徒頓和等狀)」(1783년 7월 23일), 밀양 표충사 소장.; 「순영장계초(巡營狀啓草)」(1784년 12월 16일), 밀양 표충사 소장.; 장동표(2000),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18)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 정책과 서원의 설립 실태」, 『역사학보』 181, 서울: 역사학회, 2004, pp.65-98.

지 3년간에 불과하니 해인사의 표충사를 침설이라 하여 훼손하는 것은 원통하고 박절함을 견딜 수 없으니 속히 담당 관청으로 세 승려의 사우(祠宇)를 해인사로 환봉할 것을 운운하였습니다. 합천과 밀양의 사원송사는 곧 승려들의 큰 싸움으로 경외(京外)에 호소하는 것이 여러 차례 뿐만이 아닌데 아직도 하나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¹⁹⁾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해인사의 사명대사 사당이 1741년 영조의 서원 훼손 정책으로 폐사되었는데, 그 이후에 “승려들의 큰 싸움[僧徒之一大戰]”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해인사와 밀양의 승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1784년(정조 8)에 해인사 승려 성연(聖演)이 밀양의 표충사를 해인사로 이건설 것을 다시 요청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성연의 주장에 따르면, 해인사에 표충사가 건립된 것은 1610년이고 밀양에 표충사가 세워진 것은 1739년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밀양 승려 남봉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우신의 「서산대사비명」이나 이천보의 「표충사기」 등에서는 선조가 사명대사의 고향인 밀양에 표충사를 세우도록 명하였다고 하였다. 즉 선조가 표충사를 세우도록 명한 곳을 성연은 해인사라고 주장하였고, 남봉은 밀양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양측의 주장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조가 표충사를 세우도록 명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선조가 아닌 후대의 국왕이 사명대사의 표충사를 세우도록 하고 해인사 혹은 밀양에 사액했을 개연성은 충분하지만 문헌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738년에 영조의 명으로 밀양의 사명대사 사당에 사액했으므로 이때의 표충사 이건설을 둘러싼 대립은 밀양 승려들의 요구대로 옳기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그런데 당시 표충사 이건설 관련 논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표충사를 둘

19) 『비변사등록』, 정조 8년(1784) 10월 1일. “慶尙道陝川海印寺聖演叔鄭基祥代 現上言內 以爲本縣海印寺表忠祠 卽休靜惟政靈主享祀之所 而創祀於萬曆庚戌 賜額於康熙十三年 逮至戊午 立祠海印 賜號表忠 … 辛酉因院祠疊設 處 撤毀之朝令 以海印表忠 後於密陽 仍爲撤毀 海印創祠 自庚戌至辛酉 爲一百四十餘年 密陽創祠 在於己未 而至辛酉 不過爲三年之間 則海印之 以疊設而撤毀 不勝冤迫 亟令有司還奉三師祠宇 於海印本寺云云 陝川密陽祠院之訟 卽是僧徒之一大戰 京外呼訴 不啻屢次 而迄未歸一.”

러싼 합천과 밀양 승려 사이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불교계에 널리 퍼졌을 것이고, 이는 사명대사의 스승인 서산대사 사당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해인사 측에서 문제 삼았던 내용 중의 하나는 사명대사의 사당에 그의 스승인 서산대사를 배향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산대사는 조선후기 불교계를 양분하고 있던 청허계와 부휴계 중에서 청허계의 조사였다.²⁰⁾ 즉 그의 사당이 있는 곳은 청허계의 종원(宗院)이 될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이를 가장 먼저 간파하고 사당 건립과 사액을 추진하고 나선 곳이 바로 해남 대둔사였다.

IV. 해남 대둔사의 표충사(表忠祠) 사액

1788년(정조 12)에 해남 두륜산 대둔사 승려 계홍(戒洪)과 천묵(天默)이 서산대사의 사당에 사액을 요청하는 「상언단자(上言單子)」²¹⁾를 조정에 올렸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사명대사 유정의 사당에는 1743년(영조 19)에 ‘표충’의 편액이 내려졌는데 그의 스승인 서산대사 휴정에게는 아직 사액되지 않아 순서가 도치되었다는 점을 들어 휴정의 의발이 전해지고 있는 대둔사에 ‘표충’의 편액을 내려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이에 당시 호조판서였던 서유린은 1788년 4월 5일 정조에게 보고하기를, 대둔사는 서산대사의 의발이 전해오는 곳이고 진영도 있으며 이경구와 장유의 서산대사 비문에서도 그 충의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볼 때 「상언단자」의 내용은 믿을 만 하지만 전라도 내의 승려들이 사액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동년 7월 5일 아래와 같이 건의하게 된다.

20)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임제법통과 교학전통』, 서울: 신구문화사, 2010, pp.107-203.

21) 『비변사등록』, 정조 12년(1788) 4월 5일조에 이와 관련된 기록이 처음 보인다. 그리고 『대둔사지』(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 pp.137-147)에 수록되어 있는 「상언단자」의 끝 부분에 ‘乾隆五十三年戊申七月日’, 즉 1788년 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서유린이 임금에게 사액을 건의한 날짜(1788년 7월 5일)를 말하는 것 같다.

유사당상 서유린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호남 여러 사찰의 승려들이 서산대사의 사당과 사액을 허락해달라고 상언한 것에 대해 한 장의 상언으로 갑자기 시행을 허락할 수는 없으니 도신에게 상세히 내력을 탐지하고 논의하여 계문하도록 연석에서 분부하였습니다. 곧 전라 전 감사 심이지의 장계를 보니 아뢰기를 ‘휴정의 사적이 문자에 기록된 것이 있어서 거두어 취하여 고찰해 보니 고 상신 이정구, 장유가 지은 비문에서 모두 충의하다고 표창하기를 지극히 하였습니다. … 제자 유정 등이 기록한 「보장록」 가운데 교지와 의발을 두륵산 대둔사에 간직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입적할 때 유축하기를 사(祠)를 세워 이것으로 귀의할 곳을 삼겠다고 하였는데 근거할 바가 없지 않습니다. … 한결같이 영남의 예에 따라사를 세우도록 허락하고 이어서 ‘표충’ 두 글자를 사액하여 조정에서 포상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아마도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에 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²²⁾

서유린이 건의한 대둔사 표충사 사액은 1788년 7월 5일에 윤허되었고, 예조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 별도의 윤허를 받기에 이르렀다.²³⁾ 그리고 이듬해 1789년 4월부터 예관을 보내 제향하였다.²⁴⁾

그런데 대둔사 승려들이 임금에게 올린 「상언단자」의 내용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상언단자」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장록」의 내용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냐의 문제이다. 이 「보장록」의 내용은 지금도 대흥사에 전해온다.²⁵⁾ 서산대사의 행장을 기록하고 있는 「보장록」은 1606년에 유정과 해안 등이 모여 지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보장록」의 내용은 1795년에 김낙일(金

22) 『비변사등록』, 정조 12년(1788) 7월 5일. “有司堂上徐有隣所啓 頃因湖南諸寺僧上言 西山許祠賜額 不可以一張上言 遽然許施 令道臣 詳探來歷 論列啓聞之意 筵奏 分付矣 即見全羅前監司沈頤之狀啓 則以爲休靜事跡之載於文字者 收取考見 則故相臣李廷龜張維所撰碑文 俱以忠義 極其獎許 … 弟子惟政等所記寶藏錄中 教旨衣鉢 藏于頭崙山大菴寺 乃是入寂時遺囑 則建祠之以此爲歸 不無所據 … 一依嶺南例 許以建祠 仍賜表忠二字之額 以示朝家褒獎之意 恐合事宜矣 上曰 依爲之.”

23) 『승정원일기』 1645책(탈초본 87책), 정조 12년(1788) 8월 4일 기사.

24) 서유린, 「서산대사표충사기적비명」,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DB.

25) 「보장록」은 『대둔사지』에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있을 뿐 전문이 들어 있지 않지만 현재 대흥사 홈페이지(<http://www.daeheungsa.co.kr>)에서 전문을 소개하고 있다.

洛一)이 찬술한 「서산대사행록」에도 소개되어 있다.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자.

지금 보장록을 보니, 1604년 1월 23일에 선사가 입적할 때 제자 등에게 유촉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입적한 뒤에 의발을 호남도 해남 두륜산 대흥사에 전하라. 두륜산이 비록 한쪽에 치우쳐 있으나 삼절을 가지고 있기에 귀중하게 여긴다. 그 하나는 기이한 꽃과 풀이 계절마다 광경을 이루고 식물과 곡식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북쪽에는 월출산이 있어서 천주를 지탱하고 남쪽에는 달마산이 있어서 지축을 받들고 동쪽의 천관산과 서쪽의 선은산은 우뚝 서서 서로 상대하고 있으며, 바다와 산이 둘러싸고 있고 골짜기가 깊고 머니, 이에 만세토록 썩지 않을 땅이다. 또 하나는 왕의 교화가 천리에 이름에 늦고 빠름이 없는 것이니, 나의 공적이 비록 칭찬할 것은 없으나 국왕의 깊은 은혜를 이로 인해 감동한다면 후세에 어찌 나무를 스치는 바람소리가 어리석은 속인을 경계시킨다는 도가 없겠는가. 또 하나는 처영과 여러 제자들이 모두 남방에 있으니, 이는 곧 종통이 돌아갈 곳이다. 나는 뜻을 이미 정했다. 그대들은 유촉을 거스르지 말고 나의 의발과 국왕께서 하사하신 대선사 교지를 보내어 두륜산에 옮겨 보관하라.” 그리고 명조로 하여금 이 일을 주관하게 하고, 유정에게 편지를 부쳐 후사를 부탁한 뒤에 입적하였다.²⁶⁾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보장록」의 주요 내용은 서산대사가 입적하기 전에 직접 의발을 대둔사에 전하도록 명했고, 대둔사는 삼절(三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며, 서산대사가 명조로 하여금 이 일을 주관하도록 했다는 것 등 세 가지이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몇 가지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서산대사가 자신의 의발을 대둔사에 전하도록 제자들에게 유촉했다는 것은 「보장록」을 제외하면 「상언단자」 이전의 다른 기록에서는

26) 김낙일, 「서산대사행록」, 『조선사찰사료』 권상, 조선총독부, 1911, p.320. “今見寶藏錄 歲甲辰正月二十三日 禪師入寂之時 遺囑弟子等曰 今我寂滅之後 衣鉢傳于湖南道海南頭崙山大興寺 頭崙雖在僻隅 俺有三節爲重者 一則奇花異草 片時光景 布帛菽粟 亘久不泯 北有月出 撐極天柱 南有達摩 盤結地軸 東之天冠 西之仙隱 屹然相對 海嶽五衛 洞府深邃 此則萬歲不朽之地也 一則王化千里 緩急未暨 俺之功績 雖無可稱 聖主殊恩 憑此觀感 則後世豈無樹風警愚俗之道乎 一則處英及諸弟子 皆在南方 此乃宗統所歸 俺意已定 爾等毋違遺囑 送我衣鉢及聖上所賜大禪師教旨 移藏于頭崙山中 使明照 主管此事 付書惟政 托以後事 因爲入寂.”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보장록」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19세기 초에 편찬된 『대둔사지』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金字보장록(金字寶藏錄)은 실로 연계된 후대 사람이 추념하여 만들었으니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²⁷⁾라고 하여 「보장록」이 후대에 조작되었다고 보았고, 그 이유로 8가지를 들어 논리적으로 증명하였다.²⁸⁾ 그러나 『대둔사지』에서는 「보장록」이 조작되었다고 하면서도 서산대사가 대둔사에 의발을 전하도록 유촉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다.

둘째, 「보장록」에서는 서산대사가 명조에게 이 일을 주관하도록 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명조는 정묘호란 때 팔도승병대장으로 승군을 이끌었던 인물로 송월응상(松月應祥, 1572~1645)에게서 수학한 허백명조(虛白明照, 1593~1661)를 말한다. 그러므로 1606년이라면 명조는 겨우 14살에 불과하다. 그런 그가 서산대사의 행장을 짓는데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서산대사가 그에게 일을 주관하도록 명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어리다. 한편, 『대둔사지』에 수록된 「도구록추기(道具錄追記)」에서는 “효종 6년(1655)에 문인 명조가 옥발우를 정대하여 묘향산으로부터 와서 이 절에 전하였다. 또 푸른 옥발우의 크고 작은 것 3좌, 당초무늬를 새긴 가죽신 2쌍, 의승대장의 누른 비단 가사 1령을 한 때에 함께 가지고 왔다.”²⁹⁾라고 하였다. 즉 명조가 63세가 되는 1655년(효종 6)에 서산대사의 의발을 대둔사에 가지고 왔다고 한 것이다. 「도구록추기」의 기록으로 볼 때, 명조가 서산대사의 의발을 대둔사에 가지고 온 것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지만, 「보장록」의 기록처럼 서산대사로부터 의발에 대한 유촉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1655년 명조가 서산대사의 의발을 대둔사에 가져온 이후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서산대사의 유촉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1788년 이전에 작성된 이정구, 장유, 이우신의 서산대사 비문³⁰⁾에는

27) 『대둔사지』, p.133. “金字寶藏錄 實係後人追造 不足憑據.”

28) 『대둔사지』, pp.134-136.

29) 『대둔사지』, p.132. “後二十四年乙未之秋(我孝宗六年)門人明照頂戴玉鉢 自香山來 流傳此寺 又碧玉鉢大小共三坐 唐鞋二雙 義僧大將黃錦緣袈裟一領 一時同來.”

「보장록」에서 언급한 서산대사의 유촉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즉 서산대사의 행적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들만이 언급되고 있을 뿐, 서산대사가 명조에 게 명하여 대둔사에 의발을 전하라고 했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상의 세 가지 이유로 「상언단자」의 내용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서유린이 천목 등의 요청을 받고 1791년에 찬술한 서산대사 비문에는 「보장록」의 내용 일부가 그대로 소개되어 있다. 이로부터 1788년 해남 대둔사에 ‘표충’의 편액이 내려진 이유로써, 서산대사의 유촉에 따라 의발이 전해지는 곳이라고 한 「보장록」의 기록이 사실로 믿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에도 해남 대흥사에는 서산대사 의발이 전해온다. 이 의발이 대둔사에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이 지은 「대둔사」라는 제목의 시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휴정이 옛날 도를 깨달았고 이 절에 사리를 묻었네.
안개 덮인 가람에 나무가 푸르고 눈 쌓인 산속에 꽃이 붉구나.
잠시 와서 나그네의 고달픔 잊고 지나가는 스님네 한가로움 책망하노라.
의발을 과시하기 좋아하니 도리어 저들의 아둔함을 싫어하노라.
대둔사에는 서산대사의 금신가사, 벽옥발우, 필적, 둥근 거울 등 여러 법보가 있다. 사명대사 이후에 법제자들이 문득 끊어지고 지금 대둔사에 그 물건들을 보관해두었다. 승려들은 단지 지나가는 객들에게 과시만 하고 있다.³¹⁾

위의 시에서 보듯이 대둔사에서는 서산대사의 의발과 필적 등을 방문한 유학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 보면 아무리 늦어도 18세기 초에는 대둔사에 서산대사의 의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명조가 63세가

30) 이정구의 비문은 1631년 이전, 장유의 비문은 1631년, 이우신의 비문은 1742년에 찬술되었다.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DB 참조.

31) 이하곤, 『남행집(南行集)』 하, 『한국문집총간』 191, p.371. “休靜昔悟道舍利埋此間 樹碧烟中寺 花紅雪裡山 暫來忘客倦 徑去愧僧閑 衣鉢誇人好 翻嫌余輩頑 寺有西山大師 金線袈裟 碧玉鉢盂 筆蹟 圓鑑 諸法寶 四溟之後法嗣頓絕 至今藏奉寺中 僧輩徒以誇示過客”

되는 1655년(효종 6)에 서산대사의 의발을 대둔사에 가져온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다.

국가로부터 사액된 이후 대둔사 표충사는 봄가을로 예관이 파견되어 제향되었다. 하지만 이 사당을 관리하고 있는 사찰의 승려들이 지방 관아의 수탈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1833년(순조 33) 예조에서 대둔사는 서산대사의 충의를 기리는 표충사가 있는 곳이므로 관아에서 함부로 침탈하지 말라는 완문을 내려서 다음의 조항들을 혁파하라고 하였다.

- 계방을 영구히 혁파할 것[契房永爲革罷事]
- 자격을 정지시키는 벌을 주거나 아래로부터 태장 치는 일을 못하게 할 것[損徒付罰自下笞杖勿侵事]
- 본 현의 관속들이 동백유를 외상으로 억지로 쓰게 하는 행위를 못하게 할 것[本縣官屬冬栢油無得外上勒用事]
- 토반들의 각종 침탈을 본관으로부터 엄히 금지시킬 것[土班各樣侵漁自官嚴禁事]
- 관에 속한 무리들이 읍의 일이라고 빙자하여 빚을 청하거나 강제로 빼앗는 일[官屬輩憑藉邑事請債侵漁事]³²⁾

위의 완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대둔사에 대한 지방 관아의 침탈이 자행되고 있던 것을 예조에서 완문을 내려 보내 각종 잡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후 대둔사의 표충사는 1836년과 1860년의 중창³³⁾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32)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사업단 편, 『사지자료집 1- 대흥사편 1 表忠祠 관련 문서』,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pp.263-294.

33) 김상영, 「표충사의 건립과 중창」, 『해남 대흥사 표충사』,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4, pp.21-32.

V. 보현사와 건봉사의 수충사(酬忠祠) 건립과 국가 사액

1788년 정조가 해남 대둔사 서산대사 사당에 ‘표충’의 사액을 내린 일은 전국 불교계에 알려졌을 것이다. 사액을 받았다는 것은 잡역 면제 등 국가로부터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였으므로 다른 사찰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충의와 관련된 사찰들에게 대둔사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액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기도 했다. 이에 대둔사 사액 이후 맨 먼저 나선 곳은 함경도 석왕사였다. 석왕사는 태조 이성계가 왕업을 이루기 전에 오백나한재를 개설했던 기도처이기도 하고 태조와 깊은 인연이 있던 무학대사 자초가 머물던 사찰이기도 했다.³⁴⁾ 그런 이유를 들어 석왕사 승려들도 1792년(정조 16)에 임금에게 ‘휴정과 유정은 임진왜란 때의 전공(戰功)으로 모두 사당을 세우고 사액을 하였는데, 무학대사는 곧 개국원훈(開國元勳)인데도 전적으로 봉향(奉享)하는 곳이 없다’며 사액을 요청하게 된다. 결국 정조는 밀양 표충사와 해남 대둔사의 전례에 따라 사액하라고 명하게 된다.³⁵⁾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묘향산 보현사 승려들에게도 자극이 되었던 것 같다. 보현사는 서산대사가 가장 오래 머물렀으며 입적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보현사 승려들은 보현사야말로 서산대사의 본거지이므로 서산대사의 사당이 없을 수 없다며 사액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묘향산 서산대사 휴정의 사당에 수충사라는 이름을 내려주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는 동시에 제위전(祭位田)을 주었다. 이는 평안도 관찰사 이병모의 요청을 따른 것이었다.³⁶⁾

34) 탁효정, 앞의 박사논문, p.106.

35) 『정조실록』, 정조 16년(1792) 윤4월 24일 1번째 기사. “浩修又啓言 釋王寺土窟舊址 有無學師小像 僧徒齊言 休靜惟政 以壬辰戰功 皆立祠賜額 無學卽開國元勳 而未有專享 願歸達天聽 移摸小像 仍奉於土窟 春秋以祀云 請依願許副 從之 仍命賜額之舉 依密陽表忠海南大茆寺例 大師之號 亦用兩寺之例 祠額曰釋王.”

36) 『정조실록』, 정조 18년(1794) 3월 16일 2번째 기사.

정조는 이미 비슷한 이유로 해남 대둔사에 사액한 바 있었으므로 거절할 명분이 없었을 것이다. 결국 1794년(정조 18) 3월 묘향산 보현사에 사액하도록 명한다. 다만 ‘수충(酬忠)’의 편액을 하사하도록 명함으로써 대둔사에 ‘표충’이라고 사액한 것과 구분했던 것 같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8일에 정조가 직접 「서산대사화상당명병서(西山大師畫像堂銘并序)」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대둔사 표충사와 보현사 수충사에 봉안하도록 명하였다.

서도와 남도의 도신(道臣)들이 서산대사의 영당에 사액할 것을 청하므로, 내가 남도의 영당은 표충, 서도의 영당은 수충이라 하고, 관청에서 제수를 주어 해마다 제사지내게 하였다. ... 내가 즉위한 지 18년인 갑인년(1794) 4월 8일에 표충사와 수충사에 봉안하노라.³⁷⁾

표충사와 수충사는 서산대사의 충의를 기리는 사당이므로 서산대사의 위패뿐만 아니라 진영을 봉안하게 된다. 그 진영에 대해 정조가 직접 글을 짓고 또 직접 글을 써서 표충사와 수충사에 하사하였다. 정조는 조선의 다른 임금처럼 유학적 소양을 지니고 있었지만 학문적 관점에서 불교를 배척하지 않았으며 불교의 신앙적 역할 역시 긍정하였다. 현릉원의 능침사인 용주사를 건설하는 등 왕실 원당을 인정하였고 승려에 대한 지나친 잡역을 감면해주기도 했다.³⁸⁾ 이처럼 불교에 대한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있던 정조는 표충사와 수충사에 대한 사액만으로 충분하더라도 진영에 대한 글을 별도로 써서 하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강산 건봉사에서 사명당 유정이 태어난 곳은 밀양이지만 출가하고 수행했던 곳이 건봉사이므로 사당을 세우고 사액해줄 것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1797년(정조 21) 건봉사 승려 월률(月律) 등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37) 『홍재전서』 제53권, 「서산대사화상당명병서」. “予因西南道臣之請其影堂額賜 南曰表忠 西曰酬忠 命官給祭需歲祀之 … 予即阼之十有八年甲寅四月八日 安于表忠酬忠之祠中.”

38) 김준혁, 「조선후기 정조의 불교인식과 정책」, 『중앙사론』 12·13 합집, 한국중앙사학회, 1999, pp.35-58.

임자년(1792, 정조16)에 묘향산에 서산대사를 위해 ‘수충’의 사액을 내린 것은, 그의 의발이 전해진 것은 호남에 있으나 승려로서의 생전 유적은 실로 묘향산에 남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정에 대해 말하자면 그를 밀양에다 기린 것은 그곳이 그의 고향이기 때문이지만 머리를 깎고 가르침을 받은 것은 건봉사이고 생전의 진영도 건봉사에 있습니다. 만약 사당을 세워 제사를 봉향하고자 한다면 건봉사를 버리고 오로지 밀양만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두 선사가 충성을 바친 사적은 똑같은데 서산대사에 대해서는 두 곳에 사액하고 유정에 대해서는 한 곳에만 사당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물을 모아 유정의 의발을 모신 건봉사에 사당을 세우려 하니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두 글자를 사액해주소서.³⁹⁾

건봉사 승려 월륜이 묘향산 보현사 수충사의 사액을 임자년(1792)이라고 한 것은 잘못 알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조실록』에도 갑인년(1794) 3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석왕사의 무학대사 사액을 착각해서 임자년이라고 표기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월륜은 사명대사가 출가하고 수행한 곳이 건봉사이므로 보현사 수충사의 예와 같이 건봉사에도 사액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월륜의 상언에 대해 형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간성 건봉사의 승려 월륜 등은 사명대사를 위한 사당을 세우고 편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정의 사당을 밀양에 세우고 특별히 기리는 은전을 받았는데도 다시 사당 건립을 청한 것은 외람된 일이지만, 그의 유적이 이 절에 있기 때문에 승려들이 이곳에 사당을 건립하고자 도신에게 호소하는 것은 실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액(請額)’이라는 두 글자에 있어서는 저들이 감히 염치를 무릅쓰고 호소할 일이 아니고, 승려들이 격쟁한 것은 더욱 무엄한 일입니다. 그들의 요청을 시행하지

39) 『일성록』, 정조 21년(1797) 2월 3일. “壬子年 西山之酬忠於妙香山者 蓋爲其衣鉢之傳 在於湖南 而生前梵偈之蹟 實留於妙香故也 至若惟政之褒於密陽者 爲其所生之鄉 而落髮聽教既在乾鳳 生前畫像亦在乾鳳 如欲建祠享祭 則豈可舍乾鳳而專取密陽乎 兩師效忠之蹟一也 西山則兩處賜額 惟政則一處立祠 渠等方欲鳩財立祠於乾鳳寺 惟政先師衣鉢之地 伏乞特賜二字額云.”

말고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 뒤에 기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⁴⁰⁾

형조에서는 건봉사 승려의 요청에 근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승려가 함부로 임금에게 요청하는 글을 올려 쟁론을 일으킨 것은 무엄한 일이므로 사액하지 말고 처벌해야 한다고 건의하였고, 정조는 형조의 건의를 수용하였다. 『일성록』의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건봉사에는 사액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당시 사명대사의 사당 건립은 건봉사 승려들의 계획대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에 편찬된 『건봉사지』에서는 1800년에 수충각과 비각이 세워졌다고 하였다.⁴¹⁾ 이때 비각에는 1799년(정조 23) 강원도 순찰사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이 지은 사명대사 비문을 돌에 새겨 세웠다.

우리 성상이 즉위하신 이래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일에 더욱 감동하여 일찍이 영변의 옛 사당에 사액하였다. ... 내가 살펴보니, 관동 본사의 유적을 예부로 이관할 것을 논의하고 또 조정에 시행을 청하기 위해 문도들이 비석을 세우고자 하였다. 내속한 자들이 마침내 돈 100꾸러미를 시주하고 모연문 다섯 두루미를 지어서 그 일을 도왔다.⁴²⁾

건봉사 승려들은 보현사의 예와 같이 사액을 받기 위해 조정에 건의함과 동시에 사당과 비석의 건립을 추진하였을 것이다. 비록 사액 받는 일은 실패하였을 지라도 사당과 비석 건립의 일은 멈추지 않았다. 아마도 이후 언젠가 다시 사액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사명대사 사당인 수충각을 세우고 또 비석을 세웠을 것이다.

40) 『일성록』, 정조 21년(1797) 2월 3일. “杆城 乾鳳寺僧月律等 爲惟政大師 建祠請額事也 惟政之立祠 密陽 已蒙褒異之典 則又請建祠 已涉猥屑 而以其留蹟於本寺 緇徒輩必欲就此而立祠 則齊訴道臣 固無不可 至於請額二字 有非渠輩所敢冒籲 僧徒之鳴金 尤爲無嚴 原情勿施 請考律重勘後錄.”

41) 이대련·한용운 편, 『건봉사금건봉사본말사적(乾鳳寺及乾鳳寺本末事蹟)』, 1928.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건봉사본말사적(乾鳳寺本末事蹟)』,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7, pp.1-15.

42) 남공철, 「건봉사사명대사기적비(乾鳳寺泗溟大師紀蹟碑)」,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DB. “我聖上卽昨以來 尤起感於西山泗溟之事 嘗就寧邊故祠而表章之 … 余按關東以本寺遺蹟論移禮部 又將請於朝施行 而其徒有以紀蹟之碑 來屬者遂捐錢百緡而施之 作募緣文五軸以相其役.”

VI. 맺음말

이상에서 18세기 표충사와 수충사 건립과 사액의 계기적 연관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1738년(영조 14) 밀양에서 사명대사 사당인 표충사를 세우고 임금의 사액을 추진하여 성공함으로써 불교계에서 임진왜란 중의 승려인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사당 건립과 사액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먼저 해인사에서 사명대사 사당을 짓고 사액을 추진하였으나 밀양과의 마찰과 영조대의 서원 첩설 금지에 따라 실패하였다. 그러나 사명대사 사당을 둘러싼 수십 년에 걸친 밀양과 해인사의 분쟁은 불교계에 사명대사의 스승인 서산대사 사당 건립과 사액의 당위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산대사 사당과 사액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한 곳은 해남 두륜산 대둔사였다. 대둔사 승려들은 1788년(정조 12) 서산대사의 의발이 전해지고 여러 선사와 강백들이 활동하고 있는 청허계의 중심 사찰인 대둔사야말로 서산대사 사당과 사액의 정당성을 갖는 곳이라며 사액의 당위성을 조정에 건의하였다. 조정에서는 대둔사의 요청을 검토한 후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정조가 서산대사 사당에 ‘표충’의 편액을 하사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함경도 석왕사에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사액의 예에 따라 무학대사의 사당에도 사액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마침내 1792년(정조 16) 조정에서 임금의 윤허를 받아내어 석왕사에도 사액을 내렸다. 석왕사의 사액 소식을 들은 묘향산 보현사 승려들은 서산대사가 머물다 입적한 곳이 보현사 임을 들어 서산대사의 사당을 짓고 조정에 사액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조는 보현사의 요청이 정당하다며 1794년(정조 18)에 ‘수충’의 편액을 하사하였다. 아울러 두륜산 표충사와 묘향산 표충사에 정조의 친필 「서산대사화상당명병서」를 하사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보현사 사액의 소식을 들은 금강산 건봉사 승려들이 1797년(정조 21)에 건봉사야말로 사명대사의 출가 수행처라는 점을 들어 사액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조정에서 건봉사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봉사 승려들은 임금의 사액을 받아내지는 못했으나 1800년(정조 22)에 사명대사의 사당인 수충각을 짓고 사명대사 비석을 세웠다. 이로써 18세기 불교계의 충의 승려 사액 운동은 끝을 맺게 되었다.

참고문헌

1. 원전류

- 『영조실록』, 『정조실록』, 『홍재전서』, 『일성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월사집』, 『계곡선생집』, 『남행집』, 『전고대방』
- 『송운대사분충서난록』, 『조선사찰사료』, 『한국사찰전서』, 『한국불교전서』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건봉사본말사적』,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7.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대둔사지』,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한국 호국불교 자료집 I』,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3.
-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사업단 편, 『사지자료집 1- 대홍사편 1 表忠祠 관련 문서』,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DB

2. 단행본 및 논문(가나다 순)

- 김상영, 「청허휴정의 사문상과 표충사 제향의 의의」, 『한국선학』 33, 서울: 한국선학회, 2012.
- 김상영, 「표충사의 건립과 중창」, 『해남 대홍사 표충사』,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4.
-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 임제법통과 교학전통』, 서울: 신구문화사, 2010.
- 김준혁, 「조선후기 정조의 불교인식과 정책」, 『중앙사론』 12·13 합집, 한국중앙사학회, 1999.
- 윤희면, 「담양 의암서원의 설립, 사액 그리고 철폐」, 『역사학연구』 57, 광주: 호남사학회, 2015.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 정책과 서원의 설립 실태」, 『역사학보』 181, 서울: 역사학회, 2004.
- 이철현, 「밀양 표충사의 연혁에 대한 재조명」, 『불교학보』 52, 서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9.
- 이철현, 「사명당 유정에 대한 밀양 유림의 평가와 추모사업」, 『한국불교학』 59, 서울: 한

국불교학회, 2011.

- 이철현, 「표충사 춘추제향의 역사와 실행-밀양 표충사와 해남 표충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76, 서울: 한국불교학회, 2015.
- 장동표, 「조선후기 밀양 표충사의 연혁과 사우 이건 분쟁」, 『역사와 현실』 35, 서울: 한국역사연구회, 2000.
- 전용우, 「조선조 서원·사우에 대한 일고찰-건립추이 및 제향인물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13, 충남: 호서사학회, 1985.
- 지두환, 「조선 임진왜란 충신열사에 대한 현창정책」, 『사학연구』 100, 경기: 한국사학회, 2010.
- 탁효정,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1.

The Establishment of Pyochungsa and Suchungsa by the 18th Century Buddhist Community and the State Bestowment of a Royal Charter

Lee, jong-su
Professor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After experiencing destructive invasions by the Japanese army in 1592 and by the Qing troops in the winter of 1636, the government of Joseon conducted a nationwide commemoration project for the loyal vassals in order to reconstruct the Confucian ruling order. As a result of this effort, a vast number of loyal subjects and righteous people were honored by the posthumous investiture with official titles and by the establishment of shrines with a royal charter in honor of them. Affected by this periodical tendency, from the 18th century, the Buddhist community carried forward a plan to build shrines with a royal charter for Samyeongdaesa Yujeong and Seosandaesa Cheongheo Hyujeong, great Zen masters who led various volunteer armies against the Japanese during the Imjin War.

In the 14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1738), Pyochungsa (“shrine of fidelity displayed”) was constructed for the first time in Miryang in honor of Yujeong and it soon gained a royal charter from the government. As a result of this success, Buddhist community at the time realized the possibility of the establishment of shrines with a royal charter in honor of Yujeong and Hyujeong.

Following this, the monks in the Daedunsa Temple, which stands on the slopes of Duryun Mountain in Haenam and is currently called Daeheungsa Temple, realized the necessity of a shrine with a royal charter to be built for Hyujeong. Thus, they

asked King Jeongjo in the 12th year of the king's reign (1788) to grant the shrine a royal charter. They appealed to the throne that their temple is most appropriate to be granted with a royal charter since Hyujeong's garments and alms bowl are preserved there and that it is the center of Cheongheo School. The king responded favorably, sending a plaque with the name “Pyochung (Ch. 表忠)” on it.

After that, the monks in the Bohyeonsa Temple in Myohyang Mountain constructed a shrine in honor of Hyujeong and asked King Jeongjo to grant the shrine a royal charter for a reason that their temple was where Hyujeong resided and passed away. The king also responded favorably, sending a plaque with the name “Suchung (Ch. 酬忠)” in the 18th year of his reign, along with granting *Seosandaesa Hwasangdangmyeong Byeongseo* (Ch. 西山大師畫像堂銘并序) in the king's own handwriting to Pyochungsa in Duryun Mountain and Suchungsa in Myohyang Mountain.

The monks of the Geonbongsa Temple in Geumgang Mountain heard the news of the Bohyeonsa Temple and also pleaded for the grant of a royal charter for a reason that their temple was where Yujeong joined the sangha and trained Buddhism. But the king at this time did not accept their request. The monks of the Geonbongsa Temple built Suchunggak shrine in honor of Yujeong without a royal charter and erected his epitaph in the 24th year of King Jeongjo's reign (1800). This marks the end of the Buddhist movement in the 18th century of appealing for the bestowment of a royal charter in honor of the loyal and righteous Buddhist monks.

Keywords

Seosandaesa Hyujeong, Samyeongdaesa Yujeong, the bestowment of a royal charter, Pyochungsa (temple of fidelity displayed), Suchungsa (temple of fidelity repayed), Miryang, The Pyochungsa Temple, The Daeheungsa Temple in Haenam, The Bohyeonsa Temple in Myohang Mountain, The Geonbongsa Temple in Guemgang Mountain, The Haeinsa Temple in Hapcheon

2018년 08월 13일 투고
2018년 09월 14일 심사완료
2018년 09월 20일 게재확정